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이영애* 정현희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또래·학교요인, 부모 감독의 부모요인, 성별의 개인적 요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 자료 중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간 종단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들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둘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최초 측정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수준은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 있어서도 개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및 성별이었고,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애착과 부모의 감독이었으며, 학교적응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및 성별이었고, 변화율에 대해서는 이들 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종단적 변화양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잠재성장모형, 또래애착, 학교적응

† 교신 저자 : 이영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332, E-mail: leevivian@hanmail.net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행동을 나타내기가 더 쉽고, 이런 문제는 때로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이어져 문제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각성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문제는 내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는 내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반사회적이며 공격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비행 행동과 같은 외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Achenbach와 Rescorla(2001)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경험적 접근에 의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로 분류하였다. 경험적 접근은 임상적 분류학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서로 관련된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 접근에 기초하여 내재화 문제는 과잉통제 혹은 불안, 우울, 위축 및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외현화 문제는 과소통제 혹은 공격성 및 파괴적 행동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적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Barber, 1992; Cantwell & Baker, 1991), 외현적 공격행동은 집단에서 따돌림이나 배척의 원인(Kupersmidt, Coie & Dodge, 1990)이 되는 행동으로 청소년기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문제로 제기되었다(오영경, 이형실, 2010).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연구 경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등 다양한 발달단계별로 상이한 연령 집단 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Millings, Buck, Montgomery, Spears, & Stallard, 2012; 강경훈, 최수미, 2013;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김동일, 최수미, 홍상두, 2007;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김은이, 오경자, 2014; 박선영, 도현심, 김민정, 2010;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오영경, 이형실, 2010; 윤혜미, 박병금, 2005; 정연옥, 2010; 조미정, 김민주, 2014). 이들 연구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특정 발달단계 혹은 연령의 한 시점에서 측정하여 비교하는 횡단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둘째, 최근 들어 위계적 선형모형, 혼합모형 그리고 잠재성장모형이라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추이를 탐색하는 종단 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특히, 잠재성장모형은 여러 영역에서의 초기치와 변화율뿐만 아니라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변화의 발달궤적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Ashman, Dawson, & Panagiotides, 2008; Gilliom & Shaw, 2004; Lansford et al., 2006; Sterba, Prinstein & Cox, 2007). 5세에서 17세까지 3년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한 Leve, Kim과 Pears(2005)의 연구에 의하면 5세에서 17세까지도 평가에 의한 내재화 문제행동은 시간변화에 따라 여자에게서만 증가하였고, 외현화 문제는 남녀 모두 감소하였다. Keily, Bates, Dodge와 Pettit(2000)의 연구에서도 교사 평가에 의한

남자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여자 아동보다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고, 2세에서 6세의 외현화 문제는 남녀 아동 모두 점차 감소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였다(Gilliom & Shaw, 2004). Deater-Deckard, Dodge, Bates와 Pettit(1998)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개인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 부모 양육, 그리고 또래집단경험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영역은 외현화 문제행동 예측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네 영역을 성별, 기질의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및 인종의 사회문화적 요인, 강압적 양육태도의 부모요인, 그리고 또래거부와 무시의 또래요인으로 구분하여, 5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을 부모와 교사 평가에 의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검증하였다(Keily et al., 2000; Keil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국내 종단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재화 문제는 시간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보고하였고(좌현숙, 2010),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며(강지현, 2014; 이주리, 2008),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의 내재화 문제(좌현숙, 오승환, 2011),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강지현, 2014),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주리, 2008)은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우울(조정아, 2009)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는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민원홍, 이봉주, 2015; 이은주, 2010; 좌현숙,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체계학적 접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그리고 통합적 접근에 기초하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내적 요인(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 등), 또래 및 학교 요인(또래거부, 또래애착, 학교소속감, 학교적응 등), 가족 및 부모요인(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등) 그리고 지역사회요인(지역사회 감독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예측요인들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성별 또는 발달단계 그리고 측정방법 및 예측변인에 따라 서로 다른 발달궤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되는 개인적 요인 중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강지현, 2014; 이주영, 오경자, 2011; 이현지 외, 2005; 조미정, 김민주, 2014). 이현지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12세에서 17세 남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K-CBCL과 K-YSR 점수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

는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외현화 문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소척도 중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성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Tambelli, Laghi, Odorisio와 Notari(2012)는 11세에서 19세의 이탈리아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성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중기 청소년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발달단계나 연령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었고, 여자는 내재화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어 일관된 결과를 밝히지 못하였다(Leve et al., 2005; Keily et al., 2003).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대상자의 연령, 집단의 분류, 측정도구의 평가자, 측정시기와 관심변인의 선정에 따라 성별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다음,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또래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5세에서 14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또래거부와 무시를 제시하였다(Reitz, Dekovic', Meijer, & Engels, 2006; Keily et al., 2003). 또래거부를 겪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었고(Laird, Jordan, Dodge, Pettit, & Bates, 2001),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동시에 나타내는 아동의 집단과 좋지 못한 또래관계는 관계가 있고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위축을 나타내었다(Panak & Garber, 1992; Wright, Zakriski, & Drinkwater, 1999). 이와 더불어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최정아, 2012), 중학교 2학년의 비행또래 수(오영경, 오형실, 2010), 초등학생의 또래관계(강지현, 2014)와 비행또래(이주리, 2008) 그리고 11세에서 19세 청소년의 또래애착(Tambelli et al., 2012)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에 관련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오승환(2009)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이희은, 문수백, 2011; 한신애, 문수백, 2011). 학교소속감과 우울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학교소속감과 우울의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유형에 의해 감소되었고 또래애착 유형을 우울의 예측인자로 보고하였다(Millings et al., 2012). 이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적응과 또래애착의 또래 및 학교요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이들 변인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발달과정의 예측인자로 부모 및 가족요인을 검토한 연구들에 의하면(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 강압적 부모양육은 5세에서 17세 아동

의 내재화와 외현화 발달궤적의 예측인자로서 17세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Leve et al., 2005), 2세에서 6세의 남녀 아동에 대한 모의 부정적 행동통제는 시간경과에 따라 높은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iom & Shaw, 2004). Galambos 외(2003)의 연구는 부모들의 확고한 행동통제가 일탈된 또래와 어울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높은 발달궤적을 멈추게 하고,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는 낮은 행동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부모의 청소년과 일탈또래와 어울리는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양육은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 또래 영향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Barnes, Hoffman, Welte, Farrell, & Dintcheff, 2006). 한편,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관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 통해(이은주, 2010; Albrecht et al., 2007)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고 강압적이거나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조미정, 김민주, 2014; 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Galambos et al., 2003;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Leve et al., 2005; Owens & Shaw, 2003; Tambelli et al., 2012). 또한 부모의 감독은 자신의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또한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고 있는 양육행동으로써 부모의 감독이 부족할 때 청소년은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성적인 위협에 처할 가능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고(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청소년기 6년에 걸친 비행행동 변화율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rnes et al., 2006). 청소년 문제행동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관계를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검증한 Duncan, Duncan과 Strycker(2000)의 연구에서 일탈친구, 연령,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가족지지가 관계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연구경향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공동발달에 관한 인과적 방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결과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변화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Keily et al., 2000). Patterson과 Capaldi(1990)는 실패모델에 기초하여 외현화 문제행동은 종종 내재화 문제행동에 선행한다고 전제하였다. 다시 말하면 외현화 문제는 사회적 발달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과 일관되게, Capaldi(1991)는 6학년 남자 아동의品行문제가 같은 시기에 측정된 우울감을 통제한 후에도 2년 후의 우울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의 변화에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는 이후 발달단계에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Fanti, Henrich, Brookmeyer, & Kupermine, 2008; Mesman, Bongers, & Koot, 2001). 또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에 일방향 보다는 양방향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Gilliom & shaw, 2004; Keily et al., 2000)를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율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탐색한 이은주(2011)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에 아동효과 및 부모효과의 상호관련성을 제기하였다. Buist, Dekovic', Meeus와 van Aken(2004)이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상호관계성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부적 상호관계가 있었고,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비행 및 공격적 행동과 관계되었다. 또한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각 문제행동의 발달단계적 양상은 어떠한 영향변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패널 자료를 통한 종단연구에 의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두 문제행동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연구하였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이 포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또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더 높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측정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발달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적인 발달단계적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 기질 등의 개인적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애착의 부모 및 가족요인과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사회환경적 성격을 가진 또래·학교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양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이나 발달은 그것이 일어나는 환경과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미리 외,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요 환경적인 맥락으로 가정, 친구 그리고 학교를 들 수 있다. 이들 맥락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청소년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또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또래들은 부모와 학교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부모와 학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해감에 따라 그가 처해있는 맥락들도 양적 · 질적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이 처한 환경적,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청

소년 발달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하여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환경적 맥락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 부모요인, 또래·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성별, 부모의 감독,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관심변인을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라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또래·학교요인인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부모요인인 부모의 감독 그리고 성별의 영향변인들이 이들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및 성별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2차년도에서 4차년도의 자료이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실시되는 종단 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종단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1 패널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된 시점인 2011년도부터 2013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에서 표집된 2351명 중 전체 문항에 응답하지 않는 71명을 제외한 2229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1152명, 여자는 1077명이다.

측정도구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여 신체

증상 8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 우울 8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였으며, 사회적 위축 5문항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신체증상 8문항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패널 조사가 2010년에 시작되었으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사용된 자료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측정되어서 2011년(중2) 자료를 1차년도, 2012년(중3) 자료는 2차년도, 2013년(고1) 자료는 3차년도로 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년도 .93, 2차년도 .94, 3차년도 .92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을 측정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년도 .81, 2차년도 .81, 3차년도 .79이었다.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 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의 문항씩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황미경(2010)이 사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또래애착의 하위요인 구성은 소외 3문항,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선생님과의 관계 5문항, 성적만족도 1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학교생활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5문

항, 학교규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은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을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학생용 학교생활적응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 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였고, 성적만족도 1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작성하여 사용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고, 이들 1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총 43문항 중에서 부모의 감독 3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 척도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에서 재인용). 부모의 감독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활동과 적응에 대한 부모의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성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자는 0, 남자는 1로 재부호화 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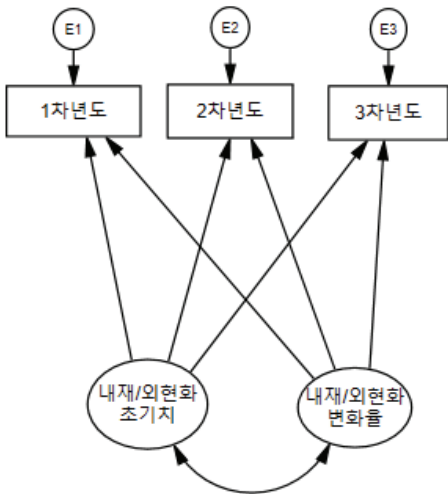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감독 및 성별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3년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2와 같다. 연구모형에 기초한 자료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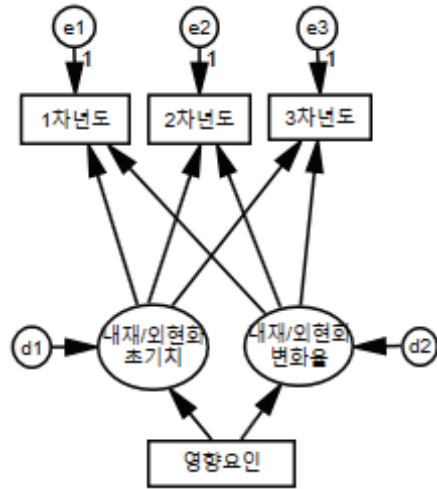
첫 단계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 곡선을 모델링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였다.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의 잠재성장모형에는 초기치(intercept)와 변화율(slope)이 포함된다. 모형 1은 무변화 모형으로 3년간 각각의 문제행동에 변화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 2는 선형변화 모형으로 3년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선형

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변화율의 측정회기별 요인계수를 0, 1, 2로 부여하였다. 모형 3은 자유모수변화모형으로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하고 2차년도의 변화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이다.

두 번째 단계로, 무조건 모형을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확인한 후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투입한 조건모형을 통해, 이들 변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모형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χ^2 외에 CFI, RMSEA, EVIC를 이용하였다. CFI>.90, RMSEA<.05~.08, EVIC는 작을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문수백, 2013). 자료의 기술통계에는 SPSS 21.0,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는 AMOS 21.0을 사용하였다.



[그림 1] 무조건 모형



[그림 2] 조건 모형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인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감독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는 표 1,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정상분포조건(왜도< 2, 첨도< 4)을 나타내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켰다(김주환, 김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민규, 홍세희, 2012).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년도(중2)에서 3차년도(고1)에 이르기까지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다소 증가했다가 감소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감독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p < .01$). 성별을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여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내재화 문제행동 측정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

측정변인	1	2	3	4	5	6	7
내재화1차							
내재화2차	.498**						
내재화3차	.448**	.522**					
또래애착	-.226**	-.277**	-.194**				
학교적응	-.154**	-.160**	-.136**	.193**			
부모감독	-.139**	-.167**	-.210**	.178**	.162**		
성별	-.101**	-.104**	-.137**	-.123**	-.021	-.047*	
N	2229	2223	2077	2223	2229	2077	2229
평균	2.045	2.076	2.001	3.104	2.746	3.095	
표준편차	.539	.559	.483	.513	.491	.581	
왜도	.115	-.025	-.084	-.212	-.077	-.406	
첨도	-1.210	-.201	-.330	-.886	.471	.500	

1. 내재화1차 2. 내재화2차 3. 내재화3차 4. 또래애착 5. 학교적응 6. 부모감독 7. 성별(남자=1, 여자=0)

* $p < .05$, ** $p < .01$, *** $p < .001$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까지는 다소 증가했다가 3차 년도에서 감소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인 또래애착, 학교적응 및 부모감독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p < .01$). 성별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은 여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현화 문제행동 측정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5	6	7
외현화1차							
외현화2차	.422**						
외현화3차	.379**	.472**					
또래애착	-.117**	-.144**	-.118**				
학교적응	-.204**	-.157**	-.147**	.193**			
부모감독	-.147**	-.135**	-.158**	.178**	.162**		

	1	2	3	4	5	6	7
성별	-.046*	-.022	-.054*	-.123**	-.021	-.047*	
N	2229	2223	2077	2223	2229	2077	2229
평균	2.129	2.203	1.965	3.095	3.104	2.746	
표준편차	.572	.598	.527	.581	.513	.491	
왜도	.091	.022	.046	-.406	-.212	-.077	
첨도	.090	-.077	-.428	.500	.886	.471	

1. 외현화1차 2. 외현화2차 3. 외현화3차 4. 또래애착 5. 학교적응 6. 부모감독 7.성별(남자=1,여자=0)

* $p < .05$, ** $p < .01$, *** $p < .001$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과정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3년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그리고 자유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무변화 모형의 RMSEA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낮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고, 선형모형의 RMSEA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기의 요인계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자유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χ^2 차이검증 결과 내재화 문제의 경우 무변화 모형($\Delta\chi^2(1)=842.689$)과 선형모형($\Delta\chi^2(1)=875.349$)에 비해 차이가 낮고, CFI, RMSEA, EVIC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자유모수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모형이었다. 따라서 자유모수변화 모형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최종적합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표 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모형 적합도

		NPAR	$\chi^2(df)$	p	CMIN/ DF	CFI	RMSEA (LO90/HI90)	EVIC
내재화 문제 행동	무변화	7	32.765(2)	.000	16.383	.978	.083(.060 / .109)	.021
	선형	6	875.454(3)	.000	28.515	.942	.111(.092 / .132)	.044
	자유모수변화	7	.105(2)	.949	.053	1.000	.000(.000 / .003)	.006
외현화 문제 행동	무변화	7	27.350(2)	.000	13.675	.976	.075(.052 / .102)	.019
	선형	6	239.613(3)	.000	79.888	.776	.188(.168 / .209)	.113
	자유모수변화	7	3.676(2)	.159	1.838	.998	.019(.000 / .050)	.008

<표 4>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추정치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공분산
내재화 문제행동	2.046***	.138***	-.045***	-.017**	-.021***
외현화 문제행동	2.124***	.137***	-.157***	-.028**	-.018***

* $p<.05$, ** $p<.01$, *** $p<.001$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자유모수변화 모형에 기초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값 및 변화율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값은 평균 2.046, 분산 .138로 나타났고, 초기값과 평균과 변량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중2)의 초기값이 청소년들 간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은 -.045, 분산은 -.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내재화 문제의 변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변화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3년간 변화율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초기값과 변화율간의 공분산은 부적 추정치인 -.021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기값이 높았던 청소년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별로 측정된 예측평균과 관찰평균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예측평균은 조건모형을 적용한 평균값이고, 관찰평균은 기술적 통계에 의한 평균값이다. 이 값들은 각 연도별로 유사하였다. 이에 의하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에 미세하게 증가하였고 2차년도에서 3차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5>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찰평균과 예측평균

지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관찰평균	예측평균	관찰평균	예측평균
1차년도	2.045	2.046	2.129	2.124
2차년도	2.076	2.075	2.203	2.207
3차년도	2.001	2.001	1.965	1.967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르는 3년 동안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으며,

표 6과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조건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조건모형 적합도

	NPAR	$\chi^2(df)$	CMIN/DF	CFI	RMSEA(LO90/HI90)	EVIC
내재화 문제행동	25	41.119(10)	4.112	.957	.037(.026 / .050)	.041
외현화 문제행동	25	49.330(10)	4.933	.973	.042(.031 / .054)	.045

<표 7>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측변인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또래애착	-.226***	-.310	.072***	-.105	.099***	-.138	.029	-.057
학교적응	-.100***	-.131	.024	-.053	-.160***	-.213	.029	-.049
부모감독	-.111***	-.172	-.026*	-.067	-.106***	-.166	-.012	-.035
성별	-.154***	-.205	-.000	-.036	-.063***	-.085	-.011	-.023

**** $p < .001$, ** $p < .01$, * $p < .05$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대해서는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성별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였고, 변화율에 대해서는 또래애착, 부모의 감독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적응과 성별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래애착과 부모의 감독은 각각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애착과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높아지고 기울기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대해서는 또래애착,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 그리고 성별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변화율에 대해서는 이들 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은 여자이면서, 학교적응,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발달궤적을 규명하

고 이에 대한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또래·학교요인, 부모의 감독의 부모요인, 성별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들을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1차 년도에서 3차 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일반적인 선형적 궤적을 보이지는 않았다.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초 측정 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수준과 변화율은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표집을 사용한 기존 연구결과(박종효, 2007;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에 의하면,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다 중학교 3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고등학교 시기에 다소 완만하거나 안정된 경향을 보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3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에서는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난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조정아, 2009)에서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중 3 시기부터 고 3 시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청소년 건강에 대한 종단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미국 청소년의 우울 변화경향에 대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남녀 청소년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실제 청소년 개인 간의 우울 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청소년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따라 우울 수준은 매우 다르며 변화양상도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되면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변화를 겪는 전이시기이지만, 남녀 청소년들이 자존감, 자기효능감, 인지 및 행동대처 양식 그리고 사회적지지 기반 등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에 적응하는 수준이 아동기 후기나 청소년 초기에 비해 변화 발달한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에서 발달경로는 다양한 경로 또는 요인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 경로를 통해 한 가지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는 동일결과론과 다중결과론의 개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추후의 장기종단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박종효, 2007; 이주리, 2008; 조미정, 김민주, 2014; 좌현숙, 오승환, 2011; 황혜원, 2007)과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은 K-YSR과 K-CBCL 모두에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소척도 중 공격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외현화

문제에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이현지 외(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비교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조미정, 김민주(2014)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학생이 초기치가 더 높고 여학생의 변화율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불일치한 면을 보였다(강지현, 2014). Keily 외(2000)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교사 평가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였고, 모 평가에 의하면 또래거부를 경험하는 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에 따라 외현화 행동을 규정한 내용과 측정방법이 서로 다르고, 빈곤지역 아동, 일반 청소년, 중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의 다양한 대상자와 측정변수 및 측정도구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유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또래애착은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 문제는 초기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좌현숙, 오승환(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내재화와 외현화의 두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강지현, 2014). 또래애착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수준이 높은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최정아, 2012), 내재화 문제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문제가 공존하는 집단에 비해 또래애착이 더 낮았다는 연구결과(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그리고 내재화 문제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에 의해 예측된다는 결과(Tambelli et al., 2012)와도 유사한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또래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또래관계가 정서적 지지의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또래의 거부나 무시를 경험한 불안정한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부적응, 우울 및 위축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거부는 높은 외현화 증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Laird et al., 2001; Keily et al., 2003)를 고려해볼 때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행또래, 소속된 또래집단의 성향 및 비행 접촉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인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학교적응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예측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이 낮을수록 불안, 우울 및 위축의 내재화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비행의 외현화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이정운, 이경아, 2004; 윤혜미, 박병금, 2005; 좌현숙,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이희은, 문수백, 2011; 한신애, 문수백, 2011). 청소년 우울의 예측인자로서 우울과 학교 소속감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또래애착은 학교적응에 보호적 기능을 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Millings et al., 2012). 학교적응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또래관계, 교사, 학교 분위기에 수용되고 지지와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각은 문제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켜주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 학교와의 관계성,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보호적 요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김동일 외, 2007).

다섯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 부모의 감독이라는 변인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감독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양육행동,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녀학대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남정민 외, 2014; 조미정, 김민주, 2014; 이은주, 2011;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Vieno & Nation, 2009). 부모의 강압적 처벌은 높은 외현화 증상과 관계되었고, 부모의 강압적 처벌은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공동으로 관계된다는 연구결과도 유사하게 일치하였다(Keily et al., 2000; Keily et al., 2003).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또는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고 있는 행동적 통제의 양육행동이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유의미한 예측인자로 비행또래(박선영 외, 2010; Galambos et al., 2003; Laird et al., 2003), 충동성(Leve et al., 2005) 그리고 가족지지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Duncan et al, 2000)의 변인을 보고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변인들과 상호관련성이 있거나 매개 및 조절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모관련 변인을 다루지 못한 점은 추후연구를 통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환경적·상황적 맥락이 될 수 있는 개인, 가족, 또래·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발달단계상 급격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로 우울, 사회적 위축 및 불안의 내재적 문제와 외현적 공격행동의 중단적 변화 추이를 탐색함으로써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시

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환경적·맥락적 차원에서 또래·학교 요인과 가족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검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에 있어 청소년들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인적 자원을 고려한 다중체계적 접근에 의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측정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에서 자기 보고에 의존한 자료로,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나 교사의 보고와 자기보고 방법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 요인과 또래요인 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속성 또한 변화하는 시변변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변변수들을 다룬 연구방법과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경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55-85.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비행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따른 외현화 문제. 미래 청소년학회지, 5(1), 163-182.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동일, 최수미, 홍상두 (2007). 청소년들이 심리내적 위험요인과 문제행동의 관계: 환경적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8(3), 1121-1136.
- 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4). 심리장애 진단 아동의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군집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675-693.
- 김은이, 오경자 (2014). 가족내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2), 79-11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67.

- 민원홍, 이봉주 (2015).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의 중단적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1), 145-169.
- 문수백 (2013).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선영, 도현심, 김민정 (2010). 어머니 감독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일탈또래와의 연합 및 자아개념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9-149.
- 박종효 (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 이미리, 조성연, 길은배, 김민 (2014). 청소년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중단적 공동발달: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은주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 효과 및 아동효과의 검증. 인간발달연구, 18(2), 21-41.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0), 261-276.
- 이주영, 오경자 (201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관계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97-518.
- 이주리 (200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적 궤. 아동과 권리, 12(4), 503-523.
- 이현지, 하은혜, 오경자 (2005). 청소년기 정서 및 행동문제의 성차.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6(1), 117-123.
- 이희은,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1-174.
-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오영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51-64.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I, 28, 133-164.
- 정연옥 (201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 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15-333.
- 조미정, 김민주 (2014). 청소년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성별차이

- 분석: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애착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267-303.
- 조정아 (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3), 167-192.
- 좌현숙 (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좌현숙, 오승환 (2011). 내재화 문제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147.
-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내적 증상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에 관한 5년 중단연구. *상담학연구*, 13(3), 1277-1293.
- 최정아 (201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부모, 또래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431-45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 1차~4차 조사 데이터 코드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신애,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355-376.
- 황혜원 (2007).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1-15.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lbrecht, A. K., Galambos, N. L., & Jansson, S. M.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5), 673-684.
- Ashman, S. B., Dawson, D., & Panagiotides, H. (2008). Trajectories of maternal depression over 7 years: Relations with child psychophysiology and behavior and role of contextual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 55-77.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 69-79.
- Barnes, G. M., Hoffman, J. H., Welte, J. W., Farrell, M. P., & Dintcheff, B. A. (2006).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deviance on substance use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1084-1104.
- Buist, K. L., Dekovic', M., Meeus, W., van Aken, M. A. G.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 251-266.

- Cantwell, D. P., & Baker, L. (1991). Association betwee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learning disorder.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 88-94.
- Capaldi, D. M. (1991). Co-occurrence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 boys I. Familial factors and general adjustment at grade 6.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277-300.
- Deater-Deckard, K.,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8).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Group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469-493.
- Duncan, S. C., Duncan, T. E., & Strycker, L. A. (200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2*(2), 103-109.
- Fanti, K. A., Henrich, C. C., Brookmeyer, K. A., & Kupermine, G. P. (2008).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8*(2), 252-276.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 (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J. McCord (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erm perspectives* (pp. 259-27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313-333.
- Keily, M. K., Bates, J., Dodge, K. A., & Pettit, G.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 Keily, M. K., Lofthouse, N.,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3), 267-283.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350-1362.

- Laird, R. D., Jordan, K. Y.,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1). Peer rejection in childhood,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in early adolescence and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752-768.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3), 401-419.
- Lansford, J. E., Dodge, K. A., Pettit, G., Bates, J. E., Crozier, J., & Koplrow, J. (2006). A 12-year prospective study of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physical maltreatment on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academic problems in adolescence.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6*, 824-830.
- Leve, L. D., Kim, H. K., & Pears, K. C.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Mesman, J., Bongers, I. L., & Koot, H. M. (2001). Preschool developmental pathways to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679-689.
- Millings, A., Buck, R., Montgomery A., Spears, M., & Stallard, P. (2012). School connectednes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s, 35*, 1061-1067.
- Owen, E. B., & Shaw, D. S. (2003).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xternalizing behavior across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575-590.
- Panak, W. F., & Garber, J. (1992). Role of aggression rejection, and attributions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45-165.
- Patterson, G. R., & Capaldi, D. M. (1990). A mediational model for boys' depressed mood. In J. E. Rolf & A. S. Masten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41-16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tz, E., Dekovic', M., Meijer, A., & Engels, R. (2006).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29*(3), 272-295.
- Sterba, S. K., Prinstein, M. J., & Cox, M. J. (2007).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childhood: Heterogeneity, external validity, and differ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345-366.

Tambelli, R., Laghi, F., Odorisio, F., & Notari, V. (2012).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Itali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1465-1471.

Vieno, A., & Nation, M. (2009). Parenting and antisocial behavior: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elf-disclosure, parental closeness,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509-1519.

Wright, J. C., Zakriski, A. L., & Drinkwater, M.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the reciprocal patterning of behavior and environment: Distinctive situational and behavioral signatures of internalizing, externalizing and mixed-syndrom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95-107.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and The Impact Factors on The Phase in Adolescent's Behavior

Lee, Young Ae Chung, Hyun Hee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behaviors and the impact factors of peer, parent, school and gender on the phas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middle 1st grade cohort's and asked to fill out the surveys every year until they reached to the 1st grade high schoo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 results showed 1) that the level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of problems decreased from at the first measurement to the third one; 2) that at the first measurement, there were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intercept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resulting in vari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terms of the slope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3) that all the impact factors such as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parental control level on their children's behavior and gender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intercept of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both peer attachment and parental control level were influenced on the slope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4) that for externalizing problem, all the factors were influenced on the intercept but not influenced on the slope.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latent growth curve model, school adjustment,